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비상 대책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주온빛초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염병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교내 누적 확진 인원이 678명 (22.3.22.기준), 하루 3~40명, 주말에는 최대 140명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업 결손만은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 교사, 비교과 교사 (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 등), 교감, 교장,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을 활용한 기간제 교사, 강사 등 초등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교원들을 동원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 급증, 대체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업 공백이 발생할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급별 재량휴업**을 실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급별 재량 휴업 실시 방안 >

- 1) 학교 현황: 22학년도 61학급, 본교 교원 수 80명,
1일 확진 및 기타요인으로 인한 결근 교원 수: 10~15명 내외 (3월 2~3주 평균)
- 2) 본교 교원, 기간제 교원 등 외부 인력 충원 후에도
수업 가능한 교원 수 61명 미만인 경우 실시 (수업 시간별 1교원 배정 원칙)
- 3) 학년 특성을 반영하여 고학년 → 저학년 순 고려
- 4) 동학년 동일한 재량휴업일 수 적용 고려
- 5) 1,2학년 학급 재량 휴업일 최대한 제외 고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있음)
- 6) 학급별 재량 휴업일 실시 **1일 전 안내**
※ 단, 확진 판정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증상이 발현하여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아침 연락** 또는 **등교 후 귀가 안내**가 있을 경우 양해 부탁드립니다.
- 7) 학급별 재량 휴업을 실시하더라도 초등 법정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함. (학급별 종업일이 변경될 수 있음)

모든 학부모님, 학생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